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 부여가인 지그 지글러(Zig Ziglar)는 “감히 도전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은 항상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전에서 시도하는 도전은 더욱 힘들다. 실사 실패할 경우 피해를 만회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새롭게 뛰는 이들이 있다. 새로운 자리, 새로운 환경에서 제2의 인생 도전에 나선 전기인들을 취재했다.



스마트조명 선두기업 레젠 설립
홍석기 대표

“제조업에 뛰어든 건 지금도 ‘나이스 초이스’라 생각해”

“후회한 적이 없나요?”

지금도 그때의 결정은 ‘나이스 초이스(Nice Choice)’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LH를 명예퇴직하고, LED조명기업인 레젠을 설립해 스마트조명의 선두주자로 키워낸 홍석기 대표는 공기업을 퇴직한 이후 제조업에 뛰어든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젠은 PIR센서와 마이크로웨이브센서를 이용, 실시간 인체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LED옥외등기구’를 개발한 원조 스마트 조명기업이다.

제조업 경험이 짧은 홍 대표가 최신의 스마트조명을 개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연구개발(R&D) 덕분이다.

LH 퇴직 후 LED기업 레젠 설립 사업경험 짧지만 R&D에 역량 결집 스마트조명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 뽐내

매년 매출액의 8%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홍 대표는 특히 정부의 개발자금 활용에 적극적이다. 최근 선정된 아시아하이웨이 사업을 포함해 지난 6년간 이 회사가 지원받은 중기부 자금만 13억6000만원에 달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집념과 고품질의 제품 덕분에 레젠은 지난해 조달시장에서 가로등 부문 1위, 보안등 부문 4위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최근에는 PC소재의 하우징과 비대칭 리플렉터를 적용한 투광등을 세계 3번째로 개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조명사업에 투신하고 느낀 점은 조명시장이 ‘이윤 없는 프레임’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내수시장만을 바라보는 조명업체라면 100%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홍 대표는 내수와 수출이 각각 절반의 비중

을 차지하는 회사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 해외시장에 나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으며, 그 결실이 바로 ‘지능형 LED옥외등기구’다.

“돈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것은 ‘내가 만든 기업을 옥외조명의 대표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 때문입니다. 레젠이 시장에서 인정받았을 때의 성취감과 쾌감은 LH 퇴직 이후 지난 6년 간 사업에 파묻혀 살아온 제 인생을 보상받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1982년 토지공사에 전기직으로 입사한 홍 대표는 사실 잘 나가는 공기업 간부였다.

토지공사 전기부장, 용인사업단장, 군사시설전사업단장 등을 거쳐 LH의 위례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전기직으로는 쉽지 않은 사업본부장까지 역임한 것이다.

LH에서 전 직군을 통틀어 퇴직 이후 제조업체를 설립한 것은 홍 대표가 유일하다.

그렇던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LED조명 개발·생산에 뛰어든 이유는 ‘옥외조명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을 만들고 싶어서다.

홍 대표와 조명의 인연은 그가 공기업에 근무할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월에는 LED등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도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인천시 경관위원회 위원,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똥똥한 LH 후배에게 레젠의 CEO를 맡길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가끔씩 후배들이 퇴직 이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자네들도 목표를 갖고 지금부터 준비하라고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성취감은 더욱 크죠.”

인생 후반전에 ‘옥외조명시장의 1등 기업’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에 나선 홍석기 대표. 그의 발걸음은 오늘도 분주하다.

윤정일 기자 yunji@

**친환경 고효율 발전
자연도 사람도 행복합니다.**

작지만 큰 가치
민간발전협회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용량의 12%(13,274MW)를 차지하며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ppa 사단법인 **민간발전협회**
Independent Power Producer Association

**“준비만 돼 있다면
기회는 누구나 잡을 수 있어”**

국립 한경대 안전공학과
유병열 교수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준비만 돼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유병열 국립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겸임교수는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유 교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1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는 1987년 3월 공사에 기능직으로 입사해 표준유지 및 국가교정기기(KOLAS) 운영업무를 맡아왔으며 지난해 12월 계기표준센터장으로 정년퇴직했다. 현재는 국립 한경대학교에서 전기안전공학을 가르치고 있다.

유 교수는 금요일마다 주간 4시간에 이어 야간 4시간씩 총 8시간을 수업해야 하는 강행군이지만 “매우 보람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013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주경야독으로 학사, 석사, 공학박사까지 마쳐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국내 안전공학박사 배출인원이 많지 않아 대학에서 수소문제 연락이 와 강단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안전 분야를 최우선한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에 있을 당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평가사 활동, 신제품 인증 평가위원 활동 등 업무에 성실해 사내외에서도 평판이 좋았으며 근면한 성격으로 통했다.

실제로 1997년 6월 공사창립 제23주년 모범 표창장, 2002년 5월 국무총리 표창, 2005년 9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수상, 2015년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감사장, 2016년 12월 국무총리 표창 등 수상이력도 화려하다.

유 교수는 “공사를 떠나온지 어언 5개월째 되지 만 웬지 오래전에 떠나온 기분”이라며 “공사에서 가정생활과 자기계발에 큰 도움을 받은 고마움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지금은 공사의 문을 떠나왔지만 혹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미로 스키, 골프, 사교댄스는 물론 색소폰 연주까지 섭렵했다. 공사에서 진행한 새올림 음악회 무대에도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연주실력이 수준급인데, 독학으로 익혔다는 성취감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사진에도 일가견이 있어 1996년과 2014년 두 차례나 전기안전 사진공모전에 입상하기도 했다. 버스 1종 대형면허도 가지고 있는데 틈틈이 절로 봉사를 다닌다고 했다.

유 교수는 “오늘이 있기까지 공사 생활 중에 차곡차곡 쌓아온 학력과 경험으로 정년퇴직 후 교수가 돼 인생 후반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며 “일과 공부를 병행할텐 힘들었지만 지금은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미래를 밝혀주는 교수로서의 활동을 하게 돼 행복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무슨일이든 두드러려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을 때 근무에 충실하면서 퇴근 후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야 한다”며 “자기계발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공사를 떠나온지 어언 5개월째 되지

**공사 근무 중 주경야독으로 박사 학위
퇴임 후 국립 한경대서 후진 양성
사진·색소폰 등 끊임없는 자기계발**

이근우 기자 igw909@